기업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

미국의 기부문화의 뿌리

천명에 가까운

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워싱톤에서 미국전역의 재단지도자들과 민간기부자, 봉사단체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<인디펜던트 섹터>의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겸한 연차회의가 "우리가 바로 약속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" 라는 주제하에 개최되었다. 이 약속이란 건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.

인디펜던트 섹터는 20년간 비영리부문의 공익활동을 대변하고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자원봉사단체들, 재단들, 종교 및 사회복지단체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는 조직체이다. 현재 800여개 단체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이 기구는 그들의 활동을 통해 미국인은 물론 전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무엇으로도 대체할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.

그러한 믿음은 외부자로서 그 연차회의에 참가했던 저를 포함한 5명의 한국참가자들도 실감할수 있었다. 3일간의 회의에 무려 176명의 연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모임에서 당면문제를 제시하는가 하면 참가자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로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의 위력은 대단했다.

1999년도의 미국의 기부금총액 1901억6000만달러

[illegible]

~~지난 20년사이에 재단은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~~ 현재 4만6천여 ~~[illegible]~~ 하고 있는가 하면 1999년도의 기부총액은 1901억 6000만달러이며 이 ~~[illegible]~~ 기부자의 분포를 보면 개인이 75.6%, 재단이 10.4%, 유산기금이 8.2%, 기업이 5.8% 이다.

미국사회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기부문화의 뿌리는 시장경제논리를 뛰어넘은 ~~[illegible]~~ 시민의 따뜻한 나눔정신과 기업의 ~~[illegible]~~ 와 건전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앞서가 뒤에 활동하는 그 상황에 ~~[illegible]~~ 두고 있다.

우리 국민일인당 년1만불도 되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기부풍토 ~~[illegible]~~ 에 ~~[illegible]~~ 없는가?

의미를 위한 문화로 없는가 생각케 한다

투명하고 명예로운 이웃의 사회 활동의 과제

12.19 [illegible]

1월 6일

[illegible]

[illegible]

[redacted]